

“지푸라기와 계란이 만나 꾸러미를 만들다”

온양문화원 실버문화학교 짚풀체험 인기 짱!



온양문화원이 실버세대를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개설한 ‘짚풀공예교실’이 축제
장 어느 곳을 가나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.

짚풀공예교실 회원들은 지난 9월 26~27일 아산사회복지박람회를 시작으로 10월 2~4
일 온양온천문화예술제, 10월 6~7일 충남평생학습축제, 10월 10~11일 전주 실버문화
축제와 10월 18일 탕정 은빛축제까지 모두 5곳 축제장 체험부분에서 단연 으뜸을 차지
했다.

지푸라기는 성인세대에는 추억을 회상하는 체험을,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는 신비의 대상
으로 자리 잡아 체험을 원하는 줄서기가 끊이지 않았다.

특히 체험품목 중에서도 계란꾸러미 만들기 체험은 계란을 직접 넣고 엮어서 만들어 장
식과 시식을 함께하는 인기를 누렸다.

전주에서 개최한 전국실버문화축제장에서도 단연 지푸라기체험이 다른 참가단체에 비
해 월등하게 인기가도를 달렸다. 이러한 인기는 탕정 은빛축제에 초대를 받음으로써 빛
을 더 발휘하게 됐으며,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웃음요소가 되기에 충분했다.

김시겸 온양문화원장은 “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까지도 연계
할 수 있는 짚풀공예반 양성에 힘을 쏟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제22회 청소년 여름문화학교
기간: 2008. 8. 4 ~ 8. 8(5일간) 주최: 온양문화원

